

번호 16-1

제 목	국문	수련 후 전임의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Factors affecting the fellows' path after training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임 준, 김창엽, 김용익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영문	Jun Yim, Chang-Yup Kim, Yong-Ik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0월				

1. 연구 목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상병구조가 변화하는 등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의학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의료의 전문화가 확대되고 전문의, 분과전문의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의의 증가 특히 분과전문의의 증가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용 증가, 의사인력의 불균형 심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분과전문의 또는 전임의의 인력현황과 수련 후 진로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임의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수련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전임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기초 분석을 시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먼저, 전임의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99년 현재 전임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65개 병원을 대상으로 99년까지 전임의 수련을 받은 전임의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전임의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임의의 수련 후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학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명단을 입수하였고, 수련병원에서 확보한 명단과 대조하여 현 근무지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근무지의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수련병원의 특성, 전공과별 특성, 수련년도, 수련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65개 조사병원 중 최종적으로 61개 병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된 61개 수련병원에서 99년 현재까지 수련 받은 전임의는 5959명에 이르고 있다. 99년 현재 수련 중인 전임의 수는 1275명이고 그 중 무급 전임의는 16.4%인 209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지역 4개병원이 전체 전임의의 4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 또는 동일계열병원별로 전임의 선발인력을 합쳐서 보면 6개 의과대학에서 선발한 전임의수가 전체의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별로는 내과가 전임의의 26.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외과 7.5%, 진단방사선과 6.6%, 마취과 6.3% 등의 순서로 전임의 수련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9년 현재 69.3%인 884명이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고 있었다. 6대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을 비교해보면, 89.4%가 6대 대도시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다. 병원 유형별로는 3차병원에서 전체 전임의의 95.1%가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 후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 35개 병원에서 제공한 전임의 수련자 명단과 각 학회원 명단을 비교하여 184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취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52.0%가 3차병원에 취업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을 포함하면 79.5%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취업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에 전임의 수련을 받은 전문의일수록 3차병원에 취업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종합병원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과별로는 신경과, 치료방사선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순서로 수련 후 3차병원에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전임의 수련이 일부 병원에 집중되고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한 전임의 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임의 수련을 받고 난 후 전임의 수련과 맞지 않은 병원급에 취업한 경우가 전체의 18.9%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전임의 인력수급정책에 수련 후 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조사대상병원 중 상당수가 과거 전임의 수련자 명단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러, 일부 자료가 조사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학회 회원 명부에 주소록 등 핵심적인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전임의 진로 현황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전임의 인력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전임의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